

국내외 IP 요약보고서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독일 환경정책의 변화

본 보고서는 해외 환경 산업 및 기술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의 보고서이며, KEITI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독일 환경정책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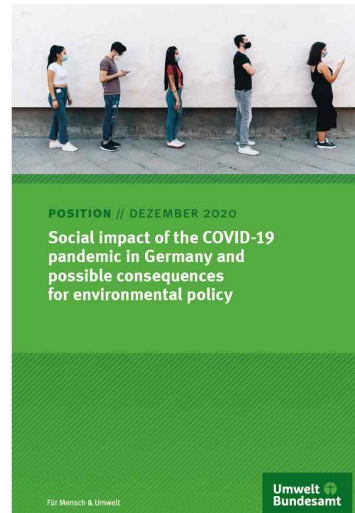
박준우

○ 개요

○ 서론

○ 본론

○ 결론



※ 동 보고서는 요약 및 번역본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원문은 다음의 링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umweltbundesamt.de/publikationen/social-impact-of-the-covid-19-pandemic-in-germany>

## 개요

최근 COVID 팬데믹의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독일 환경 정책변화의 상황과 변화의 방향을 살펴본다.

## 서론

COVID-19 대유행(팬데믹)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을 갑작스럽게 급진적으로 변화를 시켰다. 독일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정책(Lockdown)으로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있었다.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적 개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며 대유행은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회영역에서 직업적 손실의 영향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한 그 사이 새로이 학습한 위기의 경험, 팬데믹으로 인한 관점 및 가치관의 변화, 새로 습득한 기술 및 실습은 팬데믹 여파가 사라져도 지속적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적 위기의 악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 행동 및 조치의 시급성은 전염병에 의해 야기되거나 일시적인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정책은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환경적 조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해당 요약보고서는 전염병의 사회적 영향에 따른 환경정책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환경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결과를 고려한다.

## 본론

COVID-19가 야기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에 따른 환경정책의 가능성 있는 접근방식이 아래에 소개된다. 환경정책은 사회의 정의를 보다 많이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경정책이 사회적 분배효과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환경정책은 소득과 부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조치로 보다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환경정책의 사회적 영

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며 사회 및 정책 이해관계자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1.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 서비스 영역에서는 환경에 대한 소비가 적고 노동집약도가 높은 부분으로의 일자리가 이동될 것으로 전망한다.
-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노동의 감소와 기술적인 진보가 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나 이와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경우 보다 나은 근무 환경과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에 캠페인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 정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시민들에게 상업적 소비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주택 및 모빌리티와 관련한 공공서비스의 강화로 노동에 따른 소득에 의존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비(非)시장 예를 들어, 시간크레딧 시스템을 통해서 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금전적 경감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의료시스템에서는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증진을 통한 의료비용의 감소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접근 방식들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기에 광범위한 사회 및 부서 간의 토론과 테스트를 거쳐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성장 및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 시스템의 충분한 회복력이 이루어지면 항공교통 및 석탄에 기반 한 경제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결정을 고려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 2. 인간복지의 회복력을 위한 생태계의 중요성

생태계의 완전성과 높은 수준의 생물의 다양성이 인간복지의 회복력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인식은 적어도 기후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제는 상식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예들 들어, 가뭄 기간은 식량 공급에 위협으로 인지할 수 있다. 생태계의 파괴로 촉진되는 SARS-COV-2 및 기후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West Nile 바이러스 확산처럼 동물성 질병의 확산은 심각한 인간의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분배문제를 안정적인 공급망 문제로 축소되어 논의되고 있는 사실을 목격된다. 여기서 환경정책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짚어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연방 환경부 연구 116 처럼 이번 117 연구를 통해 팬데믹 초기에 대유행 과정에서의 회복력에 대한 논의와 인간복지를 위한 인택트(Intact) 생태시스템의 연결하고자 노력했다.

### 3. One Health 접근법

오늘날의 경제와 생활방식은 천연자원의 남용, 인간의 의해 만들어진 기후변화 그리고 귀중한 서식지, 다양한 생물 및 관련 결과물들의 손실로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인구통계, 경제 및 기술적 변화가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 동물 및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건강은 새롭고 복잡한 위험 앞에 지속적으로 놓일 수밖에 없다. 최근 MERS, SARS, Ebola, COVID-19 같은 동물 감염성 전염병은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위기 그리고 인간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유엔 환경프로그램에 조사에 따르면, 새로 출현하는 감염성 질병의 75%가 동물성 감염성 질병에 해당되며 매년 세계적으로 평균 3 개 이상의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현재 관계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포유류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170 만개라 존재한다고 한다.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병원균의 전이와 빠른 확산은 살림의 벌채, 집약적인 토지의 사용,

채굴남용, 탐사,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 장거리 항공교통 및 기후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One Health 접근방식은 인간의 건강이 동물의 건강, 환경의 건강, 식품의 안전 및 식량안보, 농업 방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통합적 사고의 접근방식이다. 통학적인 One Health의 성공은 관련 학문 간의 협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접근법에 환경, 기후 및 제도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현재 주로 수의학 및 식품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비록 환경 및 기후보호 조치가 인간 감염성 질병의 조기 예방 및 확산을 막고 항생제 내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환경 및 기후보호분야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환경 및 기후보호 정책은 먼저 접촉 지점을 확인하고 환경 및 건강분야의 주제(예를 들어 건강,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시스템과 관련한 건강, 기후변화, 화학적 위험성)와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One Health 접근방식으로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여기에는 젠더의 정의와 환경 영향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다. 동시에 책임 있는 다양한 영역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향상 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독일 내에 항생제 내성전략을 위해 독일 Robert Koch 연구소(독일 질병모니터링 및 예방 위한)와 Friedrich Loeffler(독일 동물건강을 위한) 연구소, 독일연방 위험성평가 연구소, 독일 연방환경부는 국내를 비롯해서 국제간의 One Health 접근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을 통해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며 One Health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부서간의 협력은 의사결정에 있어 환경 및 기후보호조치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개별적인 분야의 정책 추진과 인식의 전환

##### 4.1. 음식공급 시스템에서의 환경정책

지금까지 환경정책에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은 축산업과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팬데믹 담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팬데믹 상

황에서 전염병 치료 및 2차 감염을 보다 악화시킬 수 있기에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 발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한 환경정책의 요구된다. 동물성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되는 서식지 파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정책 관계자들에게는 해당 서식지의 높은 요구사항과 함께 가축 사육의 중요한 역할을 지적하는 동시에 식물성 기반의 대체 식품의 개발을 권장하는 환경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식량 공급의 회복력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은 농업시스템의 회복력이다. 이는 씨앗 뿌리기, 농생태학의 개념의 이해 및 임농업 시스템, 부식질 구축과 같은 생태학적 업그레이드 조치 및 접근방식을 테스트하고 확장해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외부입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함에 따라 영향 순환을 손실 없이 보다 원활하게 하여 농업의 회복성을 높일 수 있을 수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공급은 식물기반 및 계절식단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 생태학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식물 분화로 단일 농경지에 경작된 작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해당 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과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생산 방식이고 토양의 복원력을 보다 높이는 것이다.

#### 4.2 모빌리티 및 교통관련 공기오염 및 소음정책과 관련하여

심하게 혼잡한 교통 경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해야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를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로의 공간에 대한 할당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한다. 감염 위험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이미지 손상이 지속되지 않고 현 위기 이후 영구적으로 자가용 선호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및 차량공유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미지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감염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통근열차의 과밀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항공교통의 침체와 동시에 항공을 영구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1000km 미만의 짧은 비행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억제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손실로 대체 소득의 기회

의 개발 및 창출에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4.3. 홈 오피스와 그린 디지털

현재의 위기의 경험은 디지털화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택근무는 러시아워의 교통체증을 피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 직원에서 약 ¼정도가 홈 오피스 형태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주 입장에서 가능한 컴퓨터 장비의 중복을 피해야하며 예를 들어 VPN 로 액세스가 가능한 개인 PC의 경우 노트북 또는 미니 PC만 사용하며 사무실 공간에서는 기기 공유를 고려해야한다. 홈 오피스를 자주 수행하는 직원들은 환경 친화적인 홈 오피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출장을 전화 또는 화상회의 대체하는 것은 생태학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유익하며 동시에 이는 가족의 일과 육아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 될 것이다. COVID-19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보다 분명 수용 정도가 훨씬 커졌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장비를 더욱 개선해야한다. 온라인 상거래를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위기로 인해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인 디지털 과정으로 그린 IT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성도 크게 향상 되어야하며 사용된 소프트웨어 또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며 단말기의 수명 또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디지털화로 인한 관련 특정 자원의 사용 확장도 필요하며 전자제품의 원자재 재활용도 크게 향상될 필요가 있다.

#### 5. 추가적인 사회적 환경 이해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개발

해당 보고서는 팬데믹 및 이에 따른 대처 방법과 관련한 독일 사회의 광범위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대중 커뮤니케이션이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를 확인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은



분배문제와 관련한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고자 보다 강력한 사회적 및 사회정치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에너지 및 리소스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팬데믹 문제는 사회적 긴장감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었으며 사회정의에 대한 물음을 공개 토론의 장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현 단계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등한 기회의 측면에 대한 고려도 더불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이는 고전적인 의미의 분배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실제적인 전제조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COVID-19의 격리조치의 경우 사회적 발전의 기회를 감소시키며 불안정한 생활조건을 야기한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악화시킬 수 있었으며 환경 정책의 목표의 실현이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윤리적 도덕적 결정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확장옵션이 필요하다.

또한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주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상사태로 인한 제한 및 정치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이해와 화해를 위한 추가적인 범위 설정이 요구된다. 특히, 환경정책 목표의 실현으로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옵션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은 보다 건설적인 민주적 접근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정책은 지속 가능성 문화의 실현을 위해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새로운 사회 및 정치적 모델에 윤리적 담론을 요구한다.

또한 위기 의사소통과 관련한 사회적 대응은 환경정책이 있어 흥미로운 교훈을 제공하는데 사업과 사생활의 축소와 관련한 의사소통은 인구 통계학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언급하는 생물학자의 출현을 동반하여 왔는데, 예를 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후연구자와 환경 경제학자들이 광범위한 환경정책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위기 가운데 과학에 대

한 대중의 인식 발전이 요구되며 음모론의 확산을 분석하여 환경정책의 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론

COVID-19의 팬더믹 하에 환경정책은 분배의 문제를 고전적인 방식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인식의 틀이 요구되며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 이해하며 환경정책을 이해하며 사회적 정치적 방향으로 함께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

---

## 국내외 IP 요약보고서

---

---